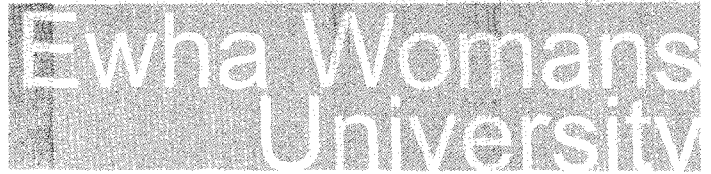


대교협,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선도



이 배 용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한국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한국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원장, 이화역사관 관장, 인문과학대학 학장 및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제 17대 대통령당선인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이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스크랜튼』, 『Women in Korean History』,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한국사회사상』 및 『한국 근대 광업침탈사 연구』 등이 있다.



한국 대학 교육의 커다란 전환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교협은 대학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양양하며,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대학 교육의 상승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창립된 대학 간 자율 협의체입니다. 저는 15대 회장으로서 손병두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대교협을 한국 대학 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협의체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명 비평가인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는 강대국이 되려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학이 12세기부터 형성되어 오랜 전통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가장 높은 지식 탐구에 헌신했다는 것, 둘째, 연구와 저술을 통해 역사 발전을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 셋째, 인재를 양성하고 인간 지식을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하나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을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전하게 된 원천은 미국 대학들의 경쟁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유럽의 대학들에 뒤쳐져 있었으나 그 이후 상황은 역전되

었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과 시기적으로 부합되는 것을 볼 때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 대학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크게 뒤져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세계 대학 평가 지표에서도 한국의 대학들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의 발전 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기능이 더욱 부각되는 이 때에 대교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 입시 업무를 이관 받은 대교협의 역할과 사명, 책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과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교협이 원칙과 방향을 정했을 때 소속 대학들이 이해와 협력 속에 함께하면서 대교협에 대한 공신력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정책 역시 큰 틀에서는 국가 정책의 일부이며 대교협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대교협의 능동적인 주도 아래 교과부 등 관련 부처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olumn

특히 올해부터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 전형의 새로운 대안으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두루 파악하는 선진형 대입 전형의 일례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학사정관제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형의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려는 각 대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의 정상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입학 전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교협은 사회적 기대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별 학교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공유하면서,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반듯한 인재 양성과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 자율성의 문제를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한 수혜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호혜적으로 설득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 그리고 이상과 현실 속에서 학문에 순수성과 실용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과제, 균형 잡힌 판단력과 예지력을 갖추어 모든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가는 대학의 역할 등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양적, 지적인 발전,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와 함께 세상의 문명을 선도하는 진리 탐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대학이 산소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을 맡고부터 많은 것을 총장님들께 배웠습니다.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서로 같은 점도 많지만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점도 많다는 것, 그러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